

(...8페이지에 이어)  
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사 제안 공개가 처음인 양 말했지만 북한은 작년 11월에도 정부가 김정은을 부산 아세안 정상회담에 초청하면서 "위원장이 못 오시면 특사라도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는 남북 베이징 비밀 접촉을 까발리면서 "남측이 천안함 사고와 정상회담 개최를 애걸하며 돈 봉투까지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런 몰상식과 외교적 무례를 서슴없이 해치우는 체제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현금인출기로 취급하거나 미국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자재대로만 써먹어 왔다. 2000년 6월 남북 첫 정상회담이 하루 연기된 것은 정상회담 뒷돈으로 약속했던 4억5000만달러가 기일 내에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은 5년 임기 한국 정권이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만 대화와 접촉을 이어 간다. 더 이상 빨아먹을 단물이 없으면 등을 돌린다. 김정일은 김대중 정부 임기 초·중반 두 차례 북한에 간 임동원 특사와는 5시간씩 시간을 내서 환담을 나눴지만, 임기 종료 직전인 2003년 1월 말 방문한 임 특사는 사흘 동안 만나주지 않고 돌려보냈다. 쓸모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김 전 대통령이 했던 네티까지 빌려 매고 북에 "대화의 창을 닫지 말라"고 호소한 것은 북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대통령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 같다"고 아쉬워하고 청와대 대변인은 북측에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훼손하지 말라"고 했다. 정성과 노력으로 축적한 신뢰로 외교 현안을 푸는 것은 정상적 국가 사이의 얘기다. 김 씨 왕조 체제는 국가 전체가

병영이자 감옥이다. 체제의 속성 자체가 폭력적, 아반적이다. 이런 집단을 상대하는 방법은 이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되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망한'다고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다. 지금의 유엔 대북 제재가 바로 그 방법이다.

이 방법은 꾸준히 끝까지 밀고 가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려면 한국 정부가 북 집단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상대를 알아야만 협상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 정부 사람들은 북 체제의 속성을 마치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듯이 놀라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건가. 김정성과 판문점 도보 다리를 산책하고 백두산에 오르고 냉면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국정과 안보를 동화(童話)로 여기는 것이다.

# 'Full of shit(거짓말쟁이)'



트럼프는 '골프 사기'로 유명했다. "클럽 챔피언십에서 열여덟 번 우승했다"고 했는데 스포츠 기자가 확인해보니 열여섯 번은 분명한 거짓말이고 두 번은 불확실하다고 한다.

트럼프가 피노키오처럼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길어졌다. "코로나 퍼팅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2017년 "트럼프가 취임 99일 중 91일 동안 적어도 하루 한 번은 허위나 오류를 말했다"고 했다.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는 "북핵을 빠른 시일 내 없앨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런데 공동성명에는 폐기 시한도, 원칙도 전부 빠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모호한 문구만 남았다. 그것도 네 가지 합의 중 세 번째였다. 회담 직후 트럼프는 미국 방부 장관과 상의도 없이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겠다'

고 발표했다. 북핵은 그대로인데 한·미 훈련이 없어졌다.

▶당시의 내막 일부가 불탄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소개됐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김정은 회담 도중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는 정말 거짓말쟁이(full of shit)"라고 적힌 쪽지를 불탄에게 슬쩍 건넸다고 한다. '총성과 폼페이오가 듣기에도 트럼프의 북핵 발언이 너무나 사실과 동떨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트럼프는 불탄에게 "별 내용 없는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승리를 선언한 뒤 이 동네를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애초에 북한 비핵화의 세부 사항에는 관심이 없었고 언론 홍보용 쇼만 관심사였다.

▶회담은 처음부터 쇼였다. 북핵 폐기를 위해선 북핵 시설 신고가 첫 번째 단계다. 그런 세부 사항 합의가 실무 차

원에서 이뤄진 다음에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데 북한은 정작 실무 회담은 무조건 건너뛰려고만 했다. 트럼프에게 자랑 쇼 판을 벌여주면 핵보유+제재 해제'를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회담을 한국 언론들은 '툭다운' 방식이라고 미화했다. 사기극일 수밖에 없는 싱가포르 회담이 끝난 뒤 청와대는 "세계사적 사건" "남·북·미의 위대한 승리"라고 했다.

▶트럼프가 거짓말쟁이기는 하지만 아주 바보는 아니었다.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가다간 미국 내에서 여론이 악화할 것'이라고 하자 미련 없이 사기 쇼 판을 걷어쳤다. 그제 하노이 노딜이다. 트럼프와 대선에서 맞붙을 미국 민주당 후보는 선거 구호로 '헛소리 그만(No Malarkey)'을 내걸었다. 지금 청와대 출신 의원이 어게인 2018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정말 '헛소리 그만'이다.

## 위기의 한반도... 말없는 두 남자

**트럼프, 대북제재 연장... 김정은, 김영정 내세워 DMZ 군투입**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긴장을 고조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며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다. 긴장 고조로 제재 해제를 받아내려는 북한에 제재 연장 카드로 맞받아친 것이다.

북한은 18일 동해안 초소를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비어 있던 일부 민경 초소(GP)에 경계 병력을 투입하고, 개성공단에도 북한군 병력 수십 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지난 17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지구 등에 부대 전개를 예고한 뒤 실제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남북연락 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 군대의 자체력은 한계를 넘어섰다.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군대의 발표를 신중히 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 백악관은 1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명의로 의회에 보낸 대북 제재 연장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북한 정부의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이후 발동

된 대북 제재 행정명령 6건의 효력이 연장됐다.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매년 6월 의회에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한·미 간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사태 해결의 키를 미국이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본부장은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을 만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자 미국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항공모함 파견 등을 요구하는 대북 강경 목소리가 나왔다. 2017년 백악관에서 대북 압박 작업을 총괄했던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 "위협에 대응할 우리 능력을 군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8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들이 있다. 강력한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빈센트 브루스 전 주한미 군사령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자신이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면 "군사적 수단으로 (대북) 압박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 폭격기, F-35 전투기,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 전개를 주장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본지에 미국의 대북 제재 법률을 모두 이용해 '최대 압

박'을 하고, 군사훈련 재개와 북한 인권 문제 제기 등을 통한 전방위 압박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사태 해결의 키를 잡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북한 문제를 부각하지 않고 상황 관리에 주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피할 것이라 예상이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본지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 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을 달래기 위해 대화에 나서 미북정상회담 같은 또 한 번의 '깜짝 쇼'를 할지, 아니면 군사적 응징 등 초강경 대응을 통해 북한을 힘으로 제압할지 선택해야 할 수 있다. 미 대선 국면과 맞물려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북한 도발 수위와 트럼프 대응에 따라 한반도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 "세상에 공돈은 없다"

### 재정 모범 4국의 쓴소리

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재정 모범 4국(Frugal 4)으로 불리는 유럽 4국 총리들이 영국 신문에 공동 기고문을 보내 "세상에 공돈은 없다"며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도 필요한 곳에 아껴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로존 회원국의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추진되는 5000억유로(약 680조원) 규모의 '긴급회복 펀드'도 나중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형태로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한번 지원되면 회수 불가능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지는 독일·프랑스의 구상에 반대하는 것이다. 4국 총리들

은 "우리는 서로 도울 자세가 돼 있지만 중요한 원칙을 저버려선 안 된다"며 "나랏빚은 납세자들이 갚아야 하는 만큼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곳을 돕고, 성장과 고용 창출이 이뤄질 곳에 써야 한다"고 했다. 이탈리아·그리스 같은 만성 적자국의 재정 구멍을 메워주는 공돈이 대선 안 된다

이들의 지적은 한국 정부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경제성장률의 2~3배를 웃도는 초팽창 예산을 매년 편성하더니,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빚장 풀린 듯 마구 빚을 내 돈을

뿌리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라며 전 국민에게 14조원을 뿌리는가 하면 경쟁력 상실한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고 부실기업 회사채까지 인수하겠다는며 벌써 세 번째 추경 편성에 나섰다. 올해만 적자국채를 100조원 이상 찍어야 할 판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와중에 여권에선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고 돈이 얼마나 들지 가능조차 어려운 전 국민 고용보증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 정부 임기 중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데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선 아무런 계획도 없다.



# SL Dental Centre on 4<sup>th</sup> ST

(previous Killarney Dental Clinic owner)

한인 치과의사 산 리 Sean Lee

Tel: 403-228-5367 / Fax: 403-229-2876

website: [www.sldentalcentre.ca](http://www.sldentalcentre.ca)

email: [mission@sldentalcentre.ca](mailto:mission@sldentalcentre.ca)

SL DENTAL CENTRE: 1000 Mission Professional Bldg  
2303 4th Street SW, Calgary, Alberta T2S 2S7

기분 안좋아?  
고기 먹을래?



MEAT SHOP KOREAN BBQ  
403) 282 8033

· 다양한 고기

· 순대	· 편육
· 막창	· 족발
· 곱창	· 떡갈비
· 돈까스	· 각종 탕
· 김치	· 돼지국밥
· 손만두	· 내장탕
	· 갈비탕
	· 사골육수
	· 갈비탕

\* 50불이상 주문시 무료 배달해드립니다.

#33-3616 52 Ave NW, Calgary



우리에게 고기먹을까?